

“팀워크 없으면 지리멸렬”...지역 당선인들, 원팀으로 뭉친다

상임위 전략적 선택 통해 재선 중심 간사 확보 나설 것 8월 전당대회서도 결집 통해 호남정치 존재감 높일 것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1대 국회에서 '원·팀' 전략으로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정치적 존재감을 높여 나간다는 공감대를 모으고 있어 주목된다.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의 현실 속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치지 않는다면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높아 21대 국회에서 정치적 활로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당선인 가운데 1~2명을 제외하고 모두 순천 출신의 김태년 의원에게 물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의 이용빈, 전남의 김희재 당선인이 원내부대표에 지명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결집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결집을 통해 호남 정치의 존재감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당선인들 가운데서는 3선이 되는 이개호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재선이 되는 송갑석·서삼석 의원 등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역 당선인들은 최고위원 후보를 1명으로 단일화,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 당 대표 경선에서도 후보들이 구체화되면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이 공고화된다면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광주·전남 정치권의 목소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회 상임위 선택에서도 광주·전남지역 당선인들의 공조가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 지역 당선인들은 내부 논의를 통해 광주에 꼭 필요한 상임위를 각기 다르게 선택, 효율성을 높이기로 사실상 동의한 상황이다. 전남지역 당선인들도 농해수위와 산자위, 국토위 등 지역에 필요한 상임위가 겹치지 않도록 내부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당선인 가운데 3선은 이개호 의원 단 한 명이라는 점에서 송갑석·서삼석·김승남·신정훈 당선인 등 재선을 중심으로 상임위 간사를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 운영에 있어 여야 간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지역 재선의원들이 간사를 맡을 수 있는 상임위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당선인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입법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앞둔 오는 17일 광주·전남지역 당선인들은 5·18 애국처벌법과 5·18 진상조사 특별법 보완입법, 5·18 관련 지원법 등을 공동발의하겠다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민간 위탁 및 특별법 연장 등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벽을 넘지 못한 지역 현안 관련 법안들을 지역 당선인들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당·전남도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일부 당선인들이 욕심을 부리는 등 불협화음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체가 하나의 지역구 성격을 띠고 있는 광주와 달리 전남은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뉘고 도시와 농촌형 지역구의 상황이 달라 정치적 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것이 세대 및 세력교체를 통해 호남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지역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어수선한 옛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후원금 회계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집회 사이에서 통제중인 경찰이 반사경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시민당 합당...177석 슈퍼 여당 탄생

합동회의서 절차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양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양당의 합당에 따라 177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이날 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대변인은 합동회의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흡수하는 흡수합당 방식으로 합당이 이뤄지면서, 당명은 더불어민주당(Democratic Party), 약칭은 민주당과 더민주를 병기해 사용하기로 했다. 합당 후 지도부는 합당 전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강경 및 정강정책, 당헌은 합당 전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당헌이 승계됐다. 사무소 소재지는 합당 전 더불어민주당 소재지이며,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승계하고 별도의 당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

송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이행에 동참해줬다"면서 "이로써 177석 단일정당이 탄생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양당의 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오늘로 이 약속을 지키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회는 단순히 국회가 21번째 임기를 맞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큰 물줄기를 결정하는 현대사적 책임을 지는 국회다.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며 "이번 국회 첫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해 대한민국을 나라도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를 가능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우희중 더시민 대표는 "(더시민) 출범 취지에 맞춰 민주당과 합당함으로써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당의 후보들이 민주당의 넉넉한 품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깨어있는 시민의 열정과 민주당의 개혁의지가 하나 되어 호시우보의 자세로 나아가 갈 때 사회 적폐 청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두관 "민주, 총선 양금 씻고 열린민주당과 통합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3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관계에 대해 "선거 때 양금을 씻고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열린민주당은 한

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며 "범진보 진영이 화합을 통해 주요 개혁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열린민주당이 (총선에서) 150만표

정도를 얻었다. 이런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할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과의 결속을 내세우면서 열린민주당과는 각을 세웠다. 열린민주당과 총선 이후 통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바람에 나부끼는 빨래...시골 마당 풍경 참 그림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312) 빨래

"햇빛이 '바리움'처럼 쏟아지는 한낮, 한 여자가 빨래를 널고 있다. 그 여자는 위엄스레 지붕 끝을 걷는다. 린넨 셔츠를 탁탁 털어 허공에 띄우는데도 한다. ...그 여자의 일생이 달려와 거기 담요 옆에 펼쳐진다..." (강은교 작 '빨래 너는 여자' 중에서)

사회학자들은 세탁기의 발명이야말로 여성이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아를 찾고 사회활동의 기회를 갖게 한 수호천사라 꼽는다. 직장과 육아, 가사에 힘겨웠던 젊은 시절엔 세탁기의 고마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탁기에서 빨래가 걸어나와 빨랫줄에 널리거나 세탁기안

에서 빨래가 건조까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도 했다. 실제로 상상은 현실이 되어 드디어 건조기가 나와 더욱 편한 세상이 되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빨래는 역시 햇빛 아래 빨랫줄에서 고슬고슬 말라야 제 맛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의 순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줄어든 듯, 깨끗해진 하늘 아래 눈부신 햇살과 바람이 아까워 이불빨래를 하고 탁탁 물기를 털어 옥상 빨랫줄에 널었다. 때가 낀 마음도 찌든 영혼도 햇빛 아래 깨끗하게 마를 것만 같다.

확실히 빨래는 여성의 노동이다. 문학에서도 그림에서도 여성작가들은 가정과 가사와 육아, 교육과 여가 등을 여성이 주인공인 세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인상주의 최초의 여류화가로 초기 인상주의 화파의 선두에서 서서 당대 예술을 이끌었던 베르트 모리조(1841~1895)의 '빨래 너는 여인'(1881년 작)은 일상생활에서 그림의 대상을 찾는



모리조 작 '빨래 너는 여인'

인상과 특유의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로코코 시대 대가인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손녀이자 파리 상류사회에서 전형적인 부르주아 여성이었던 작가가 파리를 떠나 베르사유 근처 시골에서 생활하던 때 그린 이 작품은 투명한 대기와 그 사이에 미묘하게 떨리는 빛이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는 느낌을 준다. 그림에서든, 현실에서든 마당에서 빨래를 너는 모습은 이제 참 그리운 풍경이 된 것 같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가지런한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차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